

장백산천지

5.13 (특간)



제 378 호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全球同庆第21届

5.13

世界法轮大法日

—法轮功自1992年5月13日传出—

法轮大法 弘传世界 28周年

전 세계에서 제 21 회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다



모든 조선민족이 감은해야 하는 날

조선족은 한개 역사가 오래된 민족으로서 정직하고, 선량하며, 용감한 전통미덕을 지니고 있다. 1994년 8월 20일은 모든 조선민족이 감은해야 하는 날이자 의미있는 날이다. 그것은 법륜대법(法輪大法) 창시자 리훙지(李洪志) 사부님께서 친히 조선족 자치주에 오셔서 법을 전한 날이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명절복장을 입고 리훙지(李洪志) 사부님을 환영했다. 사부님의 연길설법에 참석했던 학원이 회억록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가장 성대한례절로 사부님의 설법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으며, 학원들도 매우 흥겹게 민족복장을 차려입고 사부님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는 중국대륙 중 사부님께서 유일하게 소수민족 지구에서 설법하신 사례입니다.”

실은, 리훙지(李洪志) 사부님께서 연길에 오시기전에 이미 많은 연변민중들이 알고 소문을 전하기 시작했고, 당시 류행했던 다른 기공의 사부는 제자

천항의 포상

파룬궁은 3600여개의 다양한 포상과 지지 의안을 수여 받았다. ‘진선인(眞善忍)’의 리념은 광범하게 세인의 찬송을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행동으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기편과 모함을 폭로했다.

에게 한가지 소식을 전했다: 본 공법의 다른 공간의 사부님이 조선어로 지령을 내렸는데 “본공법의 수련은 여기까지이고 앞으로 모든 학원을 데리고 파룬궁 수련에 전입하여야 한다.”는 뜻이였다. 그리고 “파룬궁은 진정으로 인류를 고충자로 이끄는 수련공법이기에 파룬궁이야 말로 너희들이 필생까지 수련하여야 하는 공법이다.”라고 전했다.

그때로부터 많은 조선족 수련생들은 견실하게 수련하면서 ‘진선인(眞善忍)’을 실천하는 진정한 수련자가 되어 도덕이 극도로 부패해진 사회속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희망의 서광으로 사회를 빛추었다.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들은 깊이 깨닫고 있다: 파룬궁은 정법정도(正法正道)이며,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원칙에 순응 해야만이 진정한 좋은 사람이고, 신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펼쳐질 것이다. ◇

전염병이 창궐할 때 누가 걸리지 않을까?



[明후이왕] 이번 전염병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미 300 여만 명이 감염되고 22 만여 명이 사망했다.(2020년 4 월 29 일까지) 특효약이 없고 다음 번의 전염병이 어느 시간에던 닥쳐 올 것인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번 전 세계 인류 대재난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 인류 역사의 정면적인 교훈을 취해 더 많은 사람이 전염병의 겁난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사고해야 할 것이다 .

인류 역사 중에는 전염병 발생기록이 많이 있다 . 대부분 이것은 모두 공포스럽고 처참한 상황을 묘사했다 .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전염병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했다 . “사람들은 단지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는 것만 알았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제지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 . 시체가 많아서 미처 묻을 사람도 없었고 집안의 가축도 살아남지 못했다 .” 이는 전염병의 무서움을 엿볼 수 있다 .

전염병이 비록 잔혹하지만 ,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고인은 인애와 효의 정기로 역병을 제거하다

청나라 류규 (劉奎) 의 ‘송봉설역’이란 책에서는 전염병의 발생원인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마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했다 . “전염병은 인간의 소행이 하늘의 기운에 감응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자연의 기능이 서로 침범되고 , 지기 (地氣) 가 다시 상응하면 , 천지인 (天地人) 의 독기가 합해져서 역병이 발생한다 .” “전염병은 천지의 사악한 기운이다 . 사람의 정기 (正氣) 가 견고하면 사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 . 그러므로 이 사기 (邪氣) 를 피하려면 욕망을 절제하고 과로하지 말아야 하며 ,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사기를 차단해야 한다 .”

류규는 또 일부 실질적인 예를 들었다 . 예를 들어 수나라 때 신공의는 현지인들이 병을 특별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만약 한 사람이 병이 생기면 온 가족이 모두 멀리 숨어서 환자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환자 대다수가 죽었다 . 신공의는 관원을 파견하여 순찰하게 해 환자를 모두 관원으로 데려오게 했다 . 여름철 전염병이 폭발할 때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해 관원에 꽉 찰 때도 있었다 . 신공의는 직접 그 관원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을 돌보았다 . 아울러 받은 봉급으로 약을 사 환자가 의사를 찾아서 병을 치료받게 하고 환자에게 식사하고 물을 마시라고 권했다 . 환자는 이 때문에 전부 나아졌다 . 그 후 신공의는 환자의 가족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 “생사는 명에 달린 것이니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 과거에 당신들은 환자를 포기하고 돌보지 않아 그들이 죽게 된 것이다 . 지금 나는 이런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 만약 전염된다면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 환자들도 전부 나아질 수 있었겠는가 ?” 류규는 이 일을 기록한 후 한마디 평가를 적었다 . “신공의가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은 것은 청정하고 인애하여 보답을 받은 것이다 .” 신

공의의 일은 ‘북사’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그 외 류규는 또 한 효부가 전염도 마다 하지 않고 시부모를 돌본 일을 기록했고 전염병이 돌 때 선행으로 온 가족이 전염병을 멀리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 효도와 선행을 중시하고 진심으로 타인을 위하는 그들의 행위는 “전염병을 막는 진짜 좋은 처방”이라고 여겼다 .

류규의 전염병론과 이런 사실 , 그가 인체를 직접 겨냥하고 생명에 대해 탐구를 한 것으로 현재 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의사로서 그는 인체를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정신도 중시했다 . ◇



↑ < 송봉설역 > 도 세인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중시하면 관건 시각 약물이 할 수 없는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세인을 경고했다 .

세포 생물 전문가: “‘9 자 진언’은 왜 중공 병독을 해결할 수 있는가?”

중공 병독에 감염된 일부 환자가 약을 먹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真善忍好)” ‘9 자 진언’을 외워 신기하게 회복됐다. 많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했다.

이에 대해 세포 생물연구 전문가 올레센(Olesen) 여사는 연구결과 사람의 대뇌에서 발생한 사유 활동은 전기화학 과정이며 또 물질의 운동 과정이라고 말했다. 선념(善念)과 악념(惡念)은 전기화학 반응한 후의 미시적인 물질을 형성 한다. 선념이 만들어낸 미시적인 물질이 방사한 좋은 에너지는 밝고 따뜻하며 무사(無私)한 특성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악념이 만들어낸 미시적인 물질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어둡고 음침하며 이기적인 특성을 구비하고 있다.

병독의 구조와 생물 특성

병독은 핵산과 단백질 두 가지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그 과립의 크기는 세포의 1000 분의 1 정도이다. 세포 안에서 세포가 구성된 입자 사 이를 드나들 수 있다. 그것은 대사계통이 없어서 반드시 살아 있는 세포 안에 기생하여 숙주 세포의 물질을 이용해 자신의 모양에 따라 끊임없이 복제해 대량의 병독을 만들어내며, 최종적으로 세포를 손상하고 분해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병독이 세포보다 미시적이기 때문에 인류가 세포 층면에서 제조한 어떠한 약물이든지 미시적인 데로 들어가 그것을 소멸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현재 중공 병독(무한 폐렴)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물이 없다.

‘9 자 진언’을 외우면 우주 중의 좋은 에너지와 통하게 된다. 올레센 여사는 “진선인(眞·善·忍)은 우주의 특성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념할 때면 우주 중에서 자신에게 극히 미시적인 좋은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과 같다. 중공 병독이 아무리 사악해도 이런 생물 세포의 좋은 에너지가 관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병독은 순식간에 도망가거나 제거된다. 환자는 반드시 진심으로 외워야만 체내에 쌓인 안 좋은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의사가 놀라서 “당신 병이 어떻게 치료 되었죠?”

나는 농민이다. 1995년에 가슴에 쟁반 크기의 검은 점이 생겨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팠다. 너무 아프고 앙상하게 뻐만남아 바싹 마르고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들은 나를 데리고 시내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는 나에게 결과를 직접 안 알려주고 가족에게 4~5 가지의 심각한 병이 있는데 길어도 두 달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러한 절망 속에 친구가 나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하며 파룬궁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글자를 몰라 책을 읽을 수 없었고 친구는 나에게 녹음기를 줬다. 나는 날마다 사부님의 '9일 강의 설법'을 듣고 연공을 견지했다. 그 때가 1997년이였다. 3개월 뒤 내가 다시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나를 진찰하던 의사가 놀라며 “당신의 병이 어떻게 치료 되었지요?”라고 물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해서 나았어요. 파룬궁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어요.”라고 알려줬다.

1998년, 길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무거운 화물차가 내 발을 깔고 지나갔는데도 내 발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의 아내는 정신적인 문제로 앓고 있다. 한번은 아내가 갑자기 벽돌을 쥐어들고 나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나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코에 맞았다. 벽돌이 다 부서졌는데도 나의 코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2013년, 내가 시 전업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나는 2층 높이의 사다리에서 전선을 가설하고 있는데 사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나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현장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서 있었다. ◇

글 / 중국 대법제자

무한 폐렴은 정말로 눈이 있는 것만 같다



[밍후이왕] 2020년 1월 말, 중공 병독이 미친 듯이 전파될때, 무한 지역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봉쇄됐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시민들은 일시에 아주 긴장했고, 설이 지만 우리 친척 간에는 왕래할 수 없어 단지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나의 큰조카 여느리가 무한 폐렴에 감염돼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전화받는 큰조카의 말투가 매우 의기소침했고 정신적 압력이 매우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조급해 하지 말아, 예전에 너희들과 말했던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이 ‘9자 진언’을 성심껏 외우면 신불의 보호를 받는다. 너도 아내를 도와서 외워주고, 그녀도 마음먹고 외우면 반드시 좋아질 꺼야.”라고 했다. 하루 건너 다시 통화를 할때 조카의 말투가 한결 편해졌고, 그녀의 병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며칠 후 다시 연락해보니 그녀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고모는 80여세이다. 하루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고모의 막내아들도 무한 폐렴에 걸렸다고 하면서 조급해했다. 고모는 아들에게 ‘9자 진언’을 외우라고 했지만 듣지 않아, 나더러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고모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아들을 도와 ‘9자 진언’을 외워주라고 했다.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진상을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모두 3퇴(당, 단, 대에서 탈출)했다.

나는 고모의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고모의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동생에게 ‘9자 진언’을 외우면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라고 말했다. 그는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眞善忍好)’를 외우란 말이죠?” 나는 “그래 맞아. 성심성의껏 외워.” 그는 “좋아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또한번 고모 막내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받았다. 나는 그에게 “너의 형한테서 전화가 왔니?”라고 물었다. 그는 “예, 형이 알려준 대로 외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누나는 오로지 너희들이 잘되기를 원한다. 만약 네가 사부님께 좋지 않은 언행을 한 적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렴. 사부님께서 자비하시기에 꼭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자, 그는 좋다고 했다. 며칠 후 병세가 호전돼 열도 내렸고, 또 며칠 지나 완전히 나았다.

하지만 고모부는 운이 썩 좋지 않았다. 설 전 고모부는 중공

소위 10대 원수 (元帥)의 사진을 집안에 붙였다. 고모가 그것을 치웠지만 고모부는 불쾌함을 드러냈고 집에 붙여놓으니 예쁘다고 말했다. 고모는 “바로 그것이 재난을 일으켰잖아요, 당신이 붙인 이튿날부터 작은아들은 무한 폐렴에 걸렸고,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불러들여요?”라고 해도 고모부는 믿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막말까지 했다. 그 후 고모부도 무한 폐렴에 확진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지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고모는 혼자 시골에 있는 큰집에 있기에 그 누구도 고모부의 죽음을 알릴 수 없었다.

시골 대대는 고모를 다른 곳에 격리시키려고 했지만, 고모는 그곳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본인은 죽밥을 먹어야 된다며 스스로 본인집에서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대 소독원도 고모의 집을 가까이 하기 꺼려하며 고모더러 스스로 소독한 후에 소독용품을 밖으로 던지라고 요구했다. 고모는 매일 집에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眞善忍好)’를 외웠다. 나중에 대대에서 고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들은 괴상해하며 말했다: 병독은 정말로 눈이 있는 것만 같다! ◇
글 / 호북대법제자

**역병이 돌아도 두려워 말아요
명보전에 밀방이 있어요
'9자진언'을 성심껏 념하고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해요**

